

## 닛케이 주가급락의 배경

### 1. 중국경기 불투명, 장기금리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

□ ‘13년 4월 23일 닛케이평균주가는 1,143엔(7.32%) 폭락한 14,483엔으로, 2012년 11월부터 시작된 주가 상승·엔저 기조에 불안감이 대두

○ 엔 환율도 일시적으로 1달러=100.83까지 엔고가 진행

□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지표인 제조업 PMI(구매담당자경기지수)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 하지만 상하이지수도 2% 정도의 하락에 불과

○ 중국의 5월 PMI는 49.6으로 경기 상승을 예상하는 50선을 7개월 만에 하회

○ 이를 계기로 상하이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의 주가가 하락하자 이에 영향을 받아 일본주식도 하락하는 양상

□ 보다 본질적인 요인은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상승을 잘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시장에서 작용

○ 일본은행은 기동적인 자금공급으로 장기금리를 억제하겠다고 하지만, 시장에서는 공개시장조작 응찰액이 공급예정액을 하회하는 현상도 발생

#### 닛케이지수 기록 갱신

○ 닛케이평균의 하락폭 13년 만
<b>1143엔28전</b>
*하락율은 2년 2개월 만
7.32%
○ 1일 최고치■최저치 차이 13년 만
<b>1458엔62전</b>
○ 도쿄1부 매매대금 과거 최고
<b>5조8376억엔</b>
*과거 최고 거래량
776억주

## 2. 향후 전망

- 시장에서는 최근 주가급상승 과열감에 대한 반동으로 일시적 조정국면이라는 평가가 대세
  - 주가가 1,143엔 급락이지만 ‘25일 이동평균치’는 아직 14,247엔으로 아직 하락 트렌드로 돌아섰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
  - 5월 24일 10시 15분 현재 일경평균 주가는 440엔 상승하였고, 엔 환율은 0.35엔 엔저인 1달러=102.28엔으로 거래 중
  -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·재생장관도 “일본경제는 견실하게 회복하고 있으므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”고 언급
- 향후 일본의 주가동향, 환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장기금리 동향을 주시할 필요
  - 장기금리는 10년만기채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1년 2개월 만에 1%로 상승하였으나 주가하락으로 인한 채권매입 증가로 0.835%로 저하
  - 장기금리는 일본은행이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변수로 기대 인플레이션, 일본의 재정적자, 미국의 경기 및 금융정책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향후 장기금리 상승, 주가하락의 리스크는 잠재되어 있음

### 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3.5.24)